미술비평

'카미유…' 계기로 본 클로델의 생애와 작품세계

애증과 실연으로 침식된 천재성

광기, 자존심, 애집 … 인간 영혼 표현

피해의식, 착란증…비운의 생애 마감

카미유 클로델(1864~1943)은 로댕과의 운명적 만남으로 인해 생의 대부분이 애증의 그림자로 뒤덮혀 버린 비운의 조각가이다.

흥미로운 비교관람

우리에게 카미유와 로댕의 관계는 흔히 미국의 로맨스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번 전시회는 조각가로의 그들을 객관적으로 볼수있는 기회가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로댕의 작품은 단편적으로 소개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비교적 다량의 작품이 전시된 것은 처음인것으로 기억된다. 단순히 로댕의 조각만이 아니고 세기의 여인 카미유 클로델의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은 퍽 흥미있는 일이었다. 동아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이 전시는 카미유 클로델에게 촛점이 맞춰져 있는데 로댕의 제자나 연인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당당히 한 시대의 천재 조각가로서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출품작으로는 카미유 클로델의 대표작 '왈츠'를 비롯해 '소외된 사람들' '애원' '파도'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청동시대' '가라테아' 등이 있다. 클로델 작품의 대부분이 과괴되어 많이 남아있지 않은 한계성으로 그녀의 조각적 특성과 그 변천의 전모를 볼 수 없는것이 안타깝다.

프랑스 페렝테르데누아에서 출생한 클로델은 프랑스 조각사에서 인간의 영혼을 표현하는 예술가이다. 로댕의 연인이면서 모델, 공동작업가로서 그녀의 예술적 천재성이 세상의 평가를 받게 된것은 죽은지 41년 후인 1984년 로댕박물관 회고전을 통해서 였다.

◇20세 때의 카미유 클로델

◇비상하는 神(LE DIEU ENVOLE) 1894년作 72×56×38㎝ (청동)

사후 41년만에 평가

카미유는 까라꼬치학원에 다니면서 부세의 지도를 받았고 부세에 의해 로댕과의 숙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다. 카미유 클로델은 표출적 광기, 예술적 자존심, 사랑에 대한 집착이 점철된 모습으로 다가왔다. 예술과 사랑의 조화된 삶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그녀는 자신의 창작에 인생을 걸지만 로댕에게 정열과 명성을 빼앗긴 피해의식으로 영감이 까비된 채 정신착란 증세로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생을 마감했다. 그녀의 노출된 삶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일까. 카미유 클로델의 조각세계는 눈물로 빚어낸듯 투명한 영혼이 배어져 있었다. 지성으로 길들여진 감정의 완화가 아니라 창작의 고통이 깃든 격렬함으로 흙을 살아 숨쉬게 하는것 같다.

상식 무너뜨린 '왈츠'

왈츠는 남녀가 즐겁게 추는 춤이라고 여겨왔던 기존의 상식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 카미유 클로델의 '왈츠(LA VALSE)'라는 작품을 보고 있으면 금세라도 헤어져야 하는 이유를 안은 두 남녀의 마지막 몸부림같은 비애가 느껴진다. 내면 언저리에 숨은 화극조차 모조리 불살라 버린듯한 환멸에 가깝운 비애… 클로델의 작업에 비탄니가 서려 있음은 로댕의 영향이 큰 것 같다.

구별힘든 두 작품

로댕의 작품은 역동감 있는 힘찬 붓치와 대담성이 보여진다. 로댕은 비뮐란젤로 이후 바로크, 로코코… 시대를 거치면서 성행한 장식적 성격을 탈피하여 18C에 와서 이르바 힘의 조각 세계를 창출해내 조각사에 한 획을 그었다. 반면 클로델은 광기어린 삶과는 달리 서정적이며 섬세함, 관능적인 여체미를 보이지만 다소 설명적이고 장식적인 면이 보인다. 이것은 클로델이 바로크 조각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데서 오는 것일수도 있겠고 여성적인 감수성 때문이기도 할것이다. 로댕의 '가라테아'와 클로델의 '밀담을 진 소녀'를 보면 어느것이 누구의 것인지 구분짓기 힘들 정도로 서로의 조각세계가 닮아있다. 영혼의 교감이 이루어진 것일까. 그들의 영혼의 교감은 조각세계의 유사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카미유의 작품에서 간혹 처리된 거칠고 육감적인 마티에르나 로댕의 여성인체에서 슬쩍 보여지는 관능성은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로댕에게 흡수되어버린 부분을 그녀는 조각을 통해 그 상실감을 회복하려 한 것 같다.

여성예술가의 어려움

이 작품전을 보면서 여성예술가에게 드리워져 있는 어떤 한계같은 것이 느껴졌다. 우리 현실에서도 예술가의 어렵고 고달픈 삶은 명확한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여자가 예술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희생과 인고가 필요한지 새삼 인식하게 한다.

평면적인 회화와는 달리 3차원의 공간에 놓여지는 조각은 우리의 시각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것 같다. 전시장에서의 클로델조각은 공기의 흐름이 예특되어지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했다. 예술과 사랑의 혼동으로 안타까운 간절함으로 창작의 고통을 감수한 그녀. 전시장을 나올무렵 나의 가슴 한 구석엔 상처입은 클로델이 앉아 있었다.

김 상 아
<미교·4>

휴전선에서의 대화③

북한을 가리켜 구호와 글발(플래카드)이 지배하는 사회라고도 한다. 그 중에서도 '자력갱생', '주체농법', '천리마 운동', '속도전' 등은 북한의 경제정책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들이다. 여기서 '자력갱생'이나 '주체 ○○'라는 말들은 북한이 자립적 민족경제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을 자랑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선에 대한 긍정적 시각도 없지 않지만, 북한의 현재 경제실상을 두고 부정적 평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정부, 경제정책 비공개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 이를 타개하려는 몸부림을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읽을 수가 있다. 1984년 합영법개정에서 팃발(개인땅) 인정, 대일~미 관계개선 노력, 합영법의 확대, 두만강특구지정 등이 그런 몸짓들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인민군진구들은 북한의 경제가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남한의 경제를 매도하기에 급급하다. 1991년 10월 16~18일까지 평양에서 두만강특구개발을 위한 UNDP주관 실무회의가 개최되어 남한도 대표단을 파견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인민군 칠남이는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서 두만강개발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나는 경제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른다구. 하지만 자립적 민족경제에 입각해서 자체적인 힘으로 경제건설을 해나가고 있다구. 어쩌든 두만강개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구"라며 대충 얼버무려 버렸다. 이처럼 북한당국은 북한의 경제개방, 남·북교역, 합영법개정 등의 사실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경제난 타개를 위해 불가피했던 조치들이었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고 역으로 국민들의 정치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북한당국의 딜레마이겠지만, 인민군들을 난처하게 만들고 이를 보는 나로 하여금 안타깝게 했다.

"건강 위해 옥쌀 섭취"

한편으로 북한에서는 '이밥(쌀밥)에 고깃국', '쌀이 공산주의다', '1천5백만톤 알곡생산', '20만정보 새땅찾기' 등의 구호가 일상화되어 있다. 이런 구호에도 불구하고 연형묵총리의 동남아로부터 쌀1백만톤 수입교섭, 남한으로부터 5천톤 수입사실과 여러 외신을 통해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한번은 북한에서 쌀이 남아 돈다는데 왜 옥쌀(강냉이를 가루내어 짤모양으로 가공한 것)을 만들어 먹어야 하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는데 "먹강을 위해 일부러 조금씩 먹는 것이야"라며 넘겨버렸다. 북한에서는 왜 그리 많은 다락밭(계단밭)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는 "공·북에서는 주체농법에 따라, 산이 많은 우리나라를 녹창적으로 개발해서 알곡생산에 이바지하는 거야"라고 둘러댈 뿐이었다. 다락밭 개간으로 금수강산이 황폐화되었다는 것은 IPU참석 남한 국회의원들이 직접 목격한 사실이다. 농업부문에서 자본주의적으로 물질적 incentive를 도입한 텃밭, 농민시장에 대한 질문에도 역시 구체적 언급을 회피할 뿐이었다.

어느 겨울 일요일에 아침식사로 라면을 먹었다고 인사했더니 "인민군 초소에서는 자체적으로 가축도 기르고 채소, 과일, 곡물을 재배해서 더 맛있는 유식을 먹기 때문에 우리는 꼬부랑 국수같은 것은 먹질않아 아침부터 먹는 이야기야"하면서 짜증내던 기억도 난다. 그리고 경제와 관련해 북한에서 원유수입 격감에 따른 공장가동률이 저조하다거나, 인민소비품(생필품)이 부족하여 질(質)이 뒤떨어져 있다는 것도 대충 짐작할 수가 있었다.

식량난 속 경제개발 안간힘

이념보다 우선하는 빵

가끔 인공지능세품, 우리별1호, 전기자동차, 컴퓨터관련 이야기를 할때 그들이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두가지로 생각되었다. 북한이 이런 제품을 상상할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었든지, 남한의 경제사정을 너무나 모르든지 둘중의 하나일 것이다. 북한의 경제를 자본주의의 시장논리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북한의 경제가 낙후되었음을 일부러 강조하려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사정이 어려운게 사실이다. 우리는 동구사회주의국가들의 변화과정에서 이념보다는 빵이 먼저라는 기본적 진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진리 속에서 어쩔수 없이 휘말려 가는 북한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성각하게 고심해봐야 할 것이다.

양 현 찬
(점경대 경영·3)

□새로 나온 책

김세원 '비트(상·하)'

격동기 운동가의 생생한 삶

일제말 항일운동 시대에 태어나 해방정국과 6·25전쟁, 4·19혁명과 5·16쿠데타, 80년 5월 광주 등 격동의 세월 한가운데서 오로지 민족통일과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온몸으로 뛰어들었던 한 운동가의 육필수기가 책으로 나왔다.

격변하는 세계정세와 파란 많은 우리의 현대사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역사관에 혼란을 안겨주며 때로 회의주의나 방관으로 돌아서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사의 주체가 인간인 이상 역사앞에 뒷짐만 지고 있을것인가?

'어느 통일운동가의 육필수기'라는 부제가 붙은 이책 '비트'는 분단과 반민주의 반세기를 온몸으로 부대끼며 체험한 역사의 진실과 교훈을 덤덤줌으로써 위의 물음에 답을 하고자 한다.

'비트'는 원래 저자 자신이 빨치산시절이나 5·16쿠데타 세력에 의한 수배시절에 은신하며 활동하던 비밀아지트(토굴)를 뜻하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거의 모든 생애동안 지하에서 지주·민주·통일운동을 벌이며 반역의 세월, 얼음뒷던 시대와 맞서 왔던 그의 삶과 운동전체를 상징한다.

이 책의 저자 김세원씨는 해방후 단독선거 반대투쟁과 빨치산 활동을 했으며, 이수병 선생과 함께 70년대 최초 지하조직 경락연구회를 조직했고 현재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으로 통일운동을 하고 있다.

이 책은 개인의 단순한 회고록을 뛰어넘어, 역사의 현장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던 '역사적'인간이 냉전시대의 온폐되고 왜곡된 현대사의 진실을 직접 밝혀주는 소중한 1차 자료로서의 가치와 조국통일과 민중해방의 열망 하나로 역사에 목숨을 바쳤던 애국자들에 대한 생생한 증언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삶의 귀감이 되어줄 것이다.

일과 놀이/각권 5천원

□경희문화

도예과 23회 졸업전

산업대학 도예과는 오는 10월 2일 '제23회 경희대학교 도예과 졸업작품전'을 개최한다.

분야별 구분없이 가졌던 예년의 졸업작품과는 달리 이번 작품전은 조형도자부문과 찻잔, 주전자, 항 등의 산업자기부문으로 나뉘어 모두 41점(조형 24점, 산업 17점)이 전시된다.

10월 2일 오후 4시 오픈식, 3일부터 5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예종회관 1층 예종화랑(744-7871)

빛사냥, 영화제 참가

수원캠퍼스 영화패 '빛사냥'은 '가을사냥 Part-2'라는 작품을 '제1회 한총련 영화제'에 출품한다.

총연출을 맡은 김문표(자연대 물리·2)군은 "어느새인가 동아리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들 사이에 스며든 개인주의가 어느 정도인지를 그리고 이 개인주의를 깨닫고 고쳐가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고 작품내용을 설명했다.

한편 '빛사냥'은 지난 1학기에 이어 10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와 5시 외국어대 한누리 소극장에서 영화감상회를 가질 예정이다.

라미레즈 정기 연주회

서울캠퍼스 고전기타반 '라미레즈'는 27일 오후 6시 30분 크라운관에서 제11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함주로 '아틀르의 여인'중 서곡, 프렐루드의 '스타워즈', 솔로로 바흐의 '샤콘느'를 비롯하여 총 11곡을 선보일 이번 연주회는 성기상(정경대 무역·88)군이 지휘를 맡는다.

□미 술

제3회 박관우 개인전

중견화가 박관우씨의 세번째 개인 전시회가 대전에서 열린다.

80년 본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10여년 간의 작품활동을 통해 한국미술 대상전, 중앙미술 대상전 등에서 12회의 특·입선 경력이 있는 박관우씨는 어릴적 세계에 대한 동경과 인간본연의 감성에서 고독과 환상을 지닌 옛것에 대한 향수를 화폭에 옮겨 자연과 생명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있음을 보여 준다.

10월 4일부터 30일까지 평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3시까지 대전 대화문화사랑(042-252-9661)

KHPC 사진 전시회

서울캠퍼스 사진연구반(KHPC)은 제25회 정기 작품 전시회를 연다.

1차로 10월 1일부터 3일까지 명동 유네스코 회관에서, 2차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본교 진입로에서 1년동안 찍었던 사진들을 전시한다.

인물을 주로 다뤄왔던 예년의 작품경향에서 탈피하여 풍경, 구도 등 다양한 소재를 도입한 이번 전시회에는 '울릉도에서' '달마가…'를 비롯하여 모두 30여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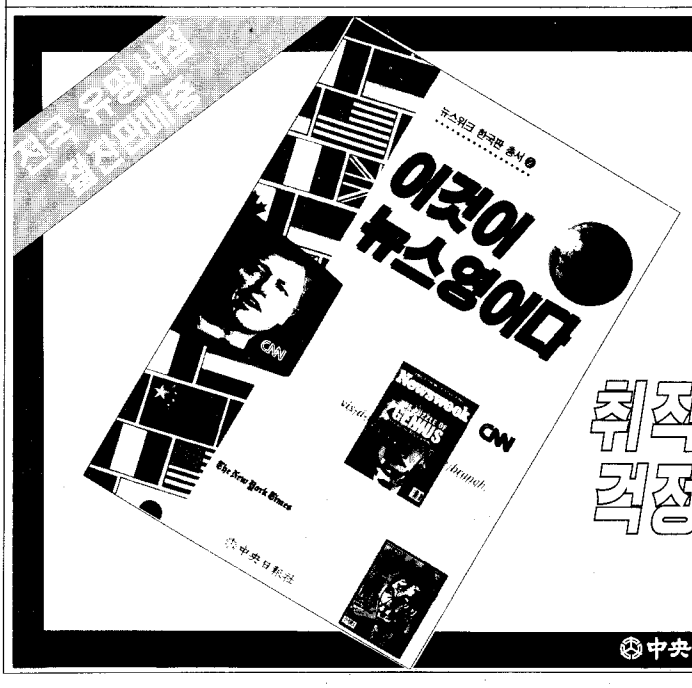
□연 극

현장 '이바구 세상2'

구한말부터 시작된 만담의 맥을 코메디나 개그와는 또다른 형식과 내용으로 이어 현실적인 삶의 정서를 잘 단아낸 극단 현장의 '이바구 세상 2'가 공연된다. (연출 박인배)

'서초동 철거촌의 땅주인'에 얽힌 이야기, '농촌에서 올라와 공단지역에서 살아가는 노동자'의 이야기 등을 통해 삶과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삶의 희망을 밝혀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평일 4시 30분, 7시 30분, 토·일·공휴일 3시, 6시 해화동 예술극장 한마당(743-1266, 762-7320)



뉴스위크 한국판 총서 ❷

이것이 뉴스 영어다

취직 영어시험 걱정없습니다

취직 시험을 앞두고 영어공부가 걱정인 사람에게
뉴스위크·타임誌 읽기가 늘 고통이었던 사람에게,
산 속의 샘물 같은 신선한 책.

- 뉴스영어의 포인트
- 93년版 시사용어 450
- 뉴스영어 이해를 돕는 세계 주요단체 100
- 한국인이 오역하기 쉬운 뉴스영어의 함정

최고의 번역 시스템을 갖춘 뉴스위크 한국판이
오랜 준비끝에 내놓은 최신 뉴스영어의 核.

中央日報社 4×6판 / 280쪽 / 값 5,000원 TEL 751-5360·5370